

# 'U-범어사' 시대... 천년 고찰이 단말기에 쏘옥

## 부산광역시와 손잡고 8월부터 'U-범어사 디지털 문화해설서비스' 실시

범어사 입구 관광안내소에서 빌린 단말기를 들고 일주문을 통과하면 창건설화, 성보박물관의 전시물 앞에 서면 해당 유물의 정보가 흘러나온다. 단순히 보고, 듣고, 기도하던 범어사는 이제, 손끝 하나로 천년고찰에 깃든 역사와 숨결까지 만날 수 있는 U-범어사의 시대가 도래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와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는 여름휴가 기간이 되는 8월부터 'U-범어사 디지털 문화해설서비스(이하 U-범어사)'를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부산시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집약한 새로운 관광안내정보 체계인 'U-투어피아'의 하나로, 터치스크린과 단말기를 이용해 누구나 손끝으로 손쉽게 전자지도와 관광·문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U-범어사'는 범어사 경내 및 상마마을 일원에 설치된 U-범어사 폴대에 다가가면 U-단말기를 통해 범어사 창건설화, 고승, 문화재, 불교문화해설 등이 흘러나오며, 성보박물관 주요 전시물 해설, 상마마을 일원의 맛집, 숙박 정보 등의 다양한 스토리텔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RFID 기반의 이 단말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4개 국어로 설정가능하며, 총 50대를 관광안내소에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일주문 인근에 46인치 LCD 터치스크린 1대와 합체로 구성된 DID(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이를 활용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산 항공사진을 활용한 관광자원 검색 서비스와 관광지, 숙박, 맛집, 소풍 등 상세정보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은 "국



내 유일의 문화재로 지정된 일주문 내부 <삼국유사> 및 수많은 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산 전체 문화재 중 26%를 보유하고 있어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범어사는 아주 중요한 보고"라며 "U-범어사" 서비스를 통해 친숙한 범어사로 한걸음 다가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일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경내에 설치된 U-범어사 폴대를 구성하고 있는 신도들(위)과 일주문 인근에 설치된 46인치 LCD터치스크린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부산시 관계자는 "U-투어피아 서비스와 같은 선진 관광안내서비스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유용한 여행정보의 제공은 물론, 관광산

##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기장 무상선원 주지 구주 스님

### "불자들 바른 깨달음 얻도록 돕고파"

범어사 신내암자 원효암에 주석하면서 모든 초청법문을 사양해온,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이 부산 외각 작은 포교원의 법좌에 올라 주옥같은 법문을 펼쳤다. 대체 어떤 인연이기에 그토록 만나기 힘들던 지유 스님을 산 아래, 도심으로 이끌었을까?

고, 또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지유 스님이 그간 펼쳐온 <수심결>의 핵심 또한 바로 조사선이다.

"결국 내가 눈을 뜨면 그뿐이지, 여타의 수행방편, 뒤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선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출발하는 문밖의 선이

라던, 본래 깨달았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바로 조사선이고 문 안의 선입니다."

무상선원이란 이름도 지유 스님이 직접 지은 것이다. 무상(無相) 즉, 모양이 없다는 표현적 의미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중국과 티베트 불교, 선종사에 큰 영향을 미친 무상 선사의 법명을 딴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조사선의 모든 것을 만나게 될 무상선원의 선불교교양대학은 총 4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오후반과 저녁반으로 나뉘어 각 1시간 30분씩 동시에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기초교의를 비롯해 조사선과 간화선의 역사와 차이점 등 조사선에 중점을 둔 '조사선 전문강단'이 될 전망이다.

구주 스님이 만들어갈 무상선원은 '깨달음=무상선원'이다.

스님은 "우리는 육체와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참나를 발견하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려던 것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이유였고, 그 핵심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자들이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 도량을 연 만큼, 무상선원하면 참선 최고, 깨달음에 이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51) 723-1583

박지원 기자



## "전쟁과 테러 몰아내자"

### 태국서 한국전쟁 참전 UN군 위령제 봉행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태국에서 열렸다.

월드승가회(회장 무승)는 6월 25일 태국 왕실수비대 21연대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기념식에서 UN군 위령제를 봉행했다.

재태 한국대사관(대사 정해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 평화를 수호하다 안타깝게 전사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월드승가회장 무승 스님, 재태 한국대사 정해문,



중앙에 모자란 참전용사는 차이완 장군. 오른쪽으로 정해문 재태 한국대사와 월드승가회장 무승 스님.

차이완 참전장군, 왕실수비대 21연대장 및 참전용사사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1부 위령제에서 월드승가회는 21연대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어 2부 문화 행사에서는 월드승가회 문화예술단과 백련예술단의 합동 민속공연이 펼쳐졌다.

무승 스님은 "600년 형제의 나라 태국과 한국이 손잡고, 인류평화를 위한 동반자로서 이 땅에서 전쟁과 테러를 몰아내는 선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천진불 모여라

### 2기 수미산원정대

지난해 여름, 수행의 열기로 산사를 뜨겁게 달군 수미산 원정대가 올해를 제2기 100명의 천진불을 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종)는 7월 25-26일 1박2일간 제2기 수미산 원정대를 개최하고, 산청 대원사로 템플스테이를 떠난다. 첫날은 사찰예절 배우기, 명상, 저녁예불 및 108배 등이 마련되고, 둘째 날에는 새벽 3시부터 새벽예불 및 참선, 사경과 포행, 운력, 명상 및 편지쓰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등이 이어진다.

접수기간은 7월 20일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하며,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1) 755-5500, www.bulguktu.org

박지원 기자

## "신도에 의한, 신도를 위한 절입니다"

### 우리선원, 아미타 후불탱화 점안·개원법회

신도들이 꾸려나가는 신도중심 청정 기도도량, 우리선원(주지 정토)이 7월 7일 개원했다.

부산 온천1동 상가 밀집지역에 자리한 우리선원은 7월 오전 10시부터 아미타불 후불탱화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우리선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신도들이 직접 재정부터 신도관리, 행정 전반 등 사찰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두고 종종 불거지는 불상사들을 미연에 방지해 투명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주지 정토 스님은 "이곳은 주지스님의 절이 아니라 신도들과 함께 원력을 세운 만큼 재정관리부터 모든 사찰운영을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원을



7월 7일 개원한 우리선원 주지 정토 스님.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24시간 법당을 개방해 언제든지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열린 기도도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지스님이 직접 하루 세 번 새벽과 사시예불, 저녁예불을 집전하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게 된다.

스님은 "언제 찾아오든 3일, 100일, 1000일 등 원하는 기도를 하시면 원만회향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원력을 모아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051)555-6577 박지원 기자

##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여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광사에서 장사왕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사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3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술이 달려 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풀어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자동차용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호신불규격적경3.5cm,세로4.5cm

## 영험의 구슬

### 보궁여의주

####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 어머니는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재석전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웅궁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

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 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려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김상원목으로 풀이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위가 있다. 고급게 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